

 <b>문화재청</b>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문화재청 50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b>		 <b>문화재청 50주년</b> 50th Anniversary of CHA
	<b>보도시점</b>	<b>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	
	<b>담당부서 (전화번호)</b>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042-860-9233)	
<b>報道資料</b> [2011.12.22.]	<b>담당자 (e-mail)</b>	임형진(garujin@korea.kr)	
<small>「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정책정보」에 동시게재</small>			

## 서원·향교, 현대를 사는 전통 유림을 말하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서원과 향교에서 봉행하는 제례(향사1, 석전2)를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인 「서원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와 「향교 석전(강릉향교, 인천향교)」을 발간했다.

서원(書院)과 향교(鄉校)는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성립되기 이전 각 지역에 설립된 공사립 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던 거점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현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서원과 향교 역시 지난 과거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서원과 향교는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搖籃)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사당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교 제례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를 서원·향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조직과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서원·향교가 과거의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일반인들이 이 보고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국공립도서관에 배포하고, 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를 통해서 원문 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붙임 : 사진자료 1부. 끝.

1) (享祀) :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공적과 덕행을 추모하여 제사지내는 의식

2) 석전(釋奠) : 문묘, 향교 등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사지내는 의식



사진 1) 준소(尊所)에서 사준(司尊)이 제주를 따르고 있다. / 소수서원



사진 2) 향사 전 경독(敬讀)을 읽으며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 소수서원



사진 3) 입재(入齋) / 도산서원



사진 4) 희생(犧牲)을 감별하는 생간품(牲看品) / 도산서원



사진 5) 석전 참석자들이 입구에서 시도기(時到記)를 작성하고 있다 / 강릉향교



사진 6) 초헌관이 문성왕신위(文宣王神位)로 이동함 / 강릉향교



사진 7) 음복례(飲福禮) / 강릉향교